



“투철한 정신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한가지 일에 정진하여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오늘의 현실속에서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업무에 정진하여 그 분야에 능통할 수 있다는 것은 극기한 사람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기자는 지난 30여년간 오직 국민건강을 위하여 노력해 온 우리 사회의 일꾼 전라남도 보건사회국 安鍾斗(54) 방역계장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갑자기 밀어닥친 水害로 초비상근무에 들어간 전남수해대책본부에는 많은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차있었고 그안에서 대책회의로 고심하고 있는 安鍾斗계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수해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큰일입니다. 곳곳에서 인명피해와 침수지역에 대한 소식이 들어와서 긴급구조작업중이지만 빨리 비가 그쳐야만……』 라면서 연신 줄담배를 태우는 그의 표정에서 비록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

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공직생활 30년동안 전남지역 어느 한구석 제 발길이 안닿은 곳이 없습니다. 부임하는 곳마다 지역주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다할 공적이 없어 부끄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국민은 과거 폐허화된 전쟁의 고통속에서 오늘날 한강의 기적이라고까지 일컫는 경제부흥을 가져오기까지 한몸,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고통스럽던 시절을 보내고 생활의 안정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시점에 왔지만 치진몸과 마음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사회건설의 요지이기도 하죠』라며 향후정부보건정책사업의 기초적 이념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어서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앞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개선보완되어야 할 사항, 지향해야 할 사항등을 묻는 기자에게,

『정부는 전국민건강을 위해 지역별로 보건소및 지소에 보건요원을 상주시켜서 각종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민의 숫자에 비해 적은 인력이 배치되고 있는

자세로 복지사업에 기여하렵니다! ”

전라남도 보건사회국 **安鍾斗** 방역계장

실정입니다. 건강관리, 결핵사업, 가족계 획사업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사업은 현재 상주하고 있는 보건요원인력으로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 인력을 더욱 확대,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협과 같은 민간단체로서 전문 검사기관을 활성화시켜 적극적인 보건계 동사업을 전개하여 국민 보건의식개선을 해야 합니다。」라며 건협의 사회적 역할을 지적해 주었다.

『전남지역은 도서해안지방을 포함해서 도민거주지역이 넓기때문에 건강검사를 실시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을텐데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도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이 큼니다.이점 도 보건담당자로서 건협임직원여러분들께 항상 감사 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주위에서 보건행정의 달인이라고 한다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어려웠던 점과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묻는 기자에게 安계장은 『제가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한다기 보다 저희 부서직원간 철저한 협조체제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 전국 어느부서라도 저희를 뒤따르지 못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점보다는 반드시 공

직자로서 지켜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어떤 조직에서라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 하며 필요한 사람이 되기위해선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투철한 정신자세를 갖춘다는 것이 어렵죠. 저자신도 관리자입장에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도측면에서 많은 후배들을 이끌어왔지만 너무 힘들었죠.그래서 앞으로는 정신적인 무장을 통한 조직의 발전에 앞장서는 동시에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5개년 영세민건강검사와 같은 복지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고저 합니다。」라며 신념에찬 어조로 답변해 주었다.

완벽주의자, 이는 질타와 비난의 소리가 뒤따르고 시기와 논쟁의 대상이 될수도 있지만 국민건강을 위하여 철저한 봉사 정신과 사명감을 가진 그에게서 매사 믿음을 갖고 일하는 공직자로서의 기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근면을 가훈으로 노 영숙여사와의 사이에 1남2녀를 둔 다복한 가정으로서 安鍾斗계장은 20대와 30대시절은 선배들에게 지혜를 배웠고 50대가 된 지금에 와서는 후배들에게 용기와 욕망을 새롭게 익히는 정신무장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김정현 글〉